

# 소설 노상직의 「女士須知」 분석 \*

- 서문과 입교(入敎)편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a Handbook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Women(Yeosasooji) Compiled by Sang-Jik Rho  
: Mainly for the Preface and Introduction

송 정 숙 (Song, Jung-Sook) \*\*

## ◁ 목 차 ▷

1. 머리말	3.2.3 편차
2. 노상직의 삶과 학문	3.3 입교편 분석
2.1 노상직의 삶	3.3.1 내용 분석
2.1 노상직의 학문	3.3.2 인용문헌 분석
3. 「여사수지」의 분석	3.3.3 「소학」과 편차 비교분석
3.1 서명 분석	3.4 「여사수지」의 의의와 한계
3.2 서문 분석	4. 맺음말
3.2.1 여성교육의 필요성	<참고문헌>
3.2.2 편찬 동기	

## < 초 록 >

이 논문은 소설 노상직이 1889년에 편찬한 여성교육서인 「여사수지」의 서문과 입교편을 분석한 것이다. 노상직은 성재 허전의 제자로 기호남인과 영남남인의 학문을 이어받은 한말의 유학자로서 평생을 강학과 저술, 문헌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서명과 서문 분석을 통해 저자가 말하는 여성교육의 필요성, 편찬동기, 편차를 살펴보고, 내용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는 입교편을 대상으로 내용, 인용문헌, 소학과편의 편차를 비교분석하여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사수지」라는 서명은 교양과 예의있는 부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즉 부녀교육의 지침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다. 서문을 분석하면, 저자는 여성이 현명하기 그렇지 않은가에 한 집의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성이 「내훈」, 「열녀전」, 「소학」, 「삼강행실」 등을 배워야 하는데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없으므로 핵심만 뽑아 「여사수지」를 편찬하였다고 편찬동기를 밝혔다. 편차는 입

\* 이 논문은 2005년 10월 21일 퇴계학부산연구원 부설 상덕문화대학 주최 2005년 시민교양공개강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ongjs@pusan.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교, 계교, 입교속록, 계교속록의 4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입교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 있다.

입교편의 내용을 분석하면, 시부모 섬기기, 시집살이에서의 유의점, 부부간·남녀간의 분별 등 여성 특히 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행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헌과 소학과와 편차를 비교 분석하면, 저자는 간략히 하기 위해 출전을 생략했고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전에서 '부모'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거나 '구교(舅姑)'로 대체함으로써 시부모 섬기기와 부부간·남녀간의 분별로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부모 섬기고, 자식 가르치는 것에 관한 내용은 거의 생략되었다.

要語 : 소닐, 노상직, 「여사수지」, 여성교육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handbook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women(*Yeosasooji*) which is compiled by Sang-Jik Rho in 1889. He was a great Confucian scholar who lived in Gyeongnam Province area, from the last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o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reface of the handbook is analyzed to explore the necessity of women education and the motivation of the compilation of it, and furthermore 1st chapter which contains the core subjects is analyzed to explore contents, citational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The fate of a family depends upon a daughter-in-law, so women have to be enlightened. But women had not enough time for reading many books. Therefore the author compiled a handbook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women(*Yeosasooji*) which touches the core for women education. The author omitt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ducation for males.

The core contents of this book is how to take care of husband's parents, distin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male and female. To emphasize these items, the author replace the word of her parents with the word of husband's parents

The main idea of this book is to promot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daughter-in-law and her husband's parents.

Key words : So-Nool, Sang-Jik Rho, *Yeosasooji*, a handbook for the education of married women, the education of women

## 1. 머리말

시대의 패러다임은 너무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사’를 돌이켜 보면 변혁의 규모나 속도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전통적 가부장제가 근대화 과정의 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2일에 호주제가 폐지되는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가정의 민주화’ 및 ‘양성(兩性) 조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여성계에서는 대환영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성매매금지법 그리고 여성 공천 할당제를 골자로 한 정당법의 개정 등 한국사회는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의 역할과 힘을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닌 ‘사회적 편익’을 위해 그 변혁을 수용하며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진다.<sup>1)</sup>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인 1889(고종 26)년, 부산 인근인 김해 창녕 밀양에 거주하였던 노상직은 35세 때 전통적 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사수지」를 편찬하였다.

그 당시 조선은 외세에 의해 외국과 통상을 맺고 개항(1876년)을 하여 외국문물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었으며, 신분제의 상징인 노비세습제가 폐지되었고(1886년),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여성을 사회로 불러내어 교육하기 위한 신식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설립되었으며(1886년),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정동교회, 언더우드에 의해 새문안교회가 창립(1887년)되었다. 이 시기는 이처럼 조선사회의 정체성이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격동의 시기였다.

이처럼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여성교육서인 「여사수지」를 편찬한 노상직은 누구이며, 왜 여성교육서를 편찬했을까? 여성 가운데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을까? 이미 「내훈」과 같은 여성교육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즉 이 책이 지닌 독자성이나 차별성은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는 ‘여사수지’라는 서명과 「여사수지」의 서문을 분석하고, 내용의 핵심이 담겨있는 입교편을 대상으로 내용 및 인용문헌 분석, 「소학」과의

1) 변도윤, “양성 조화의 ‘보이지 않는 손,’” 「국민일보」 2005. 9. 12.

편차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도 고찰해 볼 것이다.

## 2. 노상직의 삶과 학문<sup>2)</sup>

### 2.1 노상직의 삶

노상직(盧相稷, 1855 ~ 1931)은 자가 치팔(致八), 호를 소눌(小訥), 눌인(訥人) 또는 자암병수(紫巖病叟)라 하였다. 그는 조선후기 성호학과(星湖學派)의 학풍을 계승한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학문을 이어받아 영남 일원에서 그 학풍을 크게 떨친 조선 말기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 사람이다. 노상직의 삶을 가계와 사우 관계, 강학활동, 사회활동 등의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의 가계를 살펴보겠다. 노상직은 1855(철종 6)년 11월 21일 김해 생림면 금곡리에서 태어났다. 노상직의 가계는 조선 중엽 이래로 창녕에 세거한 광산노씨(光山盧氏)로서 한강 정구의 문도인 옥촌(沃村) 노극홍(盧克弘)의 후손인데, 옥촌의 증손인 해은(海隱) 노한석(盧漢錫)이 김해 생림의 금곡에 정착하여 대를 물려 살았다. 이 집안은 김해에 입향한 해은(海隱) 이후로 대대로 문학에 종사한 김해의 유력한 사종이었다. 노상직의 아버지는 극재(克齋) 노필연(盧必淵)이고, 어머니는 숙부인(淑夫人) 창녕성씨로 절제사 성욱호(成郁鎬)의 딸이다. 노상직은 뒤에 백부인 우당(愚堂) 노호연(盧濤淵)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노상직은 5세 때 「효경」을 배우기 시작하여 7세 때 「통감」을 읽었으며, 10세 때 극재로부터 「중용」과 「대학」을 배우고, 11세 때 「논어」와 「맹자」를 읽었으며, 12세 때 「시전」을 읽고, 13세에 「주역」을 읽었다. 15세 때에는 향시에 응시하였

2) 柳鐸一, “小訥 盧相稷의 文集 및 著述 刊行,” 『星湖學脈의 文集刊行研究』(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165-166.; 鄭景柱, “小訥 盧相稷의 생애와 학문 경향,” 『東洋漢文學研究(東洋漢文學會)』, 제18집(2003), 197-202.

고, 17세 때인 1871년 당시 김해부사 정현석이 향중의 자제들을 연자루에 모아서 하과(夏課)<sup>3)</sup>를 베풀 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소년시절부터 노상직은 조선 후기 사족 자제들 같이 과거를 통하여 입신하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노상직은 젊은 시절 형 대눌(大訥) 노상익(盧相益)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였다. 15세 때 향시에 응시한 것을 시작으로 21세 때 대구와 거창의 도회(都會)<sup>4)</sup>에 참가하였으며, 26세 때인 1880년에는 서울에서 경과(慶科)<sup>5)</sup> 한성시에 입격하였고, 28세 때 대눌이 별시 문과의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할 때 동당시(東堂試)<sup>6)</sup>에 입격하였고, 29세 때는 응제<sup>7)</sup>에 응하여 급분을 받았다. 그러나 31세(1885년) 때 생부의 상을 당하고, 잇달아 성재 허전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직 독서와 강학에 전념하였다. 이때는 이미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쳐 외세의 영향이 조선정부에 깊이 개입하여 정국이 극도로 어지러웠던 시기였다.

노상직의 사우관계를 보면, 노상직의 학문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 것은 성재 허전과의 만남이었다. 성재 허전이 김해부사로 부임하였을 때(1865년) 11살이었던 노상직은 백부와 생부를 따라 김해의 공여당으로 가서 허전을 배알하였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873년에는 새문 밖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던 성재를 형 노상익과 함께 찾아보았다. 이후 1878년에 다시 찾아가서 「대학」을 배웠으며, 1880년 경과(慶科)의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회시에서 좌절한 다음에 다시 부권당으로 찾아가서 「논어」와 「학칙」을 배우고, 24세 이후 성재가 별세할 때인 32세까지

- 3) 고려시대 사학(私學)에서 실시한 여름철의 교육방법. 일명 하천도회(夏天都會)라고도 했는데, 요즈음의 여름방학 특강과 같은 것이다.
- 4) 李秉然, “도회시(都會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회시는 조선시대에 지방유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실시한 시험.
- 5) 경과(慶科)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로서, 이번 경과는 고종 16년(1879) 12월 28일에 세자의 홍역이 나은 것과 관련한 경과를 증광시로 거행하라고 명하여 이루어졌다.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12월 28일(정묘).
- 6) 문수홍, “동당시(東堂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당시란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으로 조선시대에는 생원·진사과와 문과로 구분하고 과거의 본시험을 법제적으로는 문과 또는 대과라 하였으나 관용어로서는 동당시라 하였다.
- 7) 윤호진, “應製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응제시란 왕의 명에 의하여 지은 시로서 왕이 신하에게 일정한 제목을 주어 시를 짓게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 형식은 일정하지 않다. 아무 제목이나 내용을 지시하지 않고 작자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수시로 찾아가서 학업을 닦아 허성재 만년의 고제가 되었다.

노상직의 강학활동은 29세(1883년) 때 여름에 추원재에서 학도 30여 명을 모아 여름 강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평생을 강학으로 일관하였다. 부친상과 생모상을 당했을 때 일시 중지했다가 34세 때인 1888년에는 극기재에서 다시 강학을 시작했고, 1891년에는 추원재에서 강의했다. 그는 김해, 창녕, 밀양 등지에서 강학했으며, 이는 한일합방으로 중단되었다. 1910년에 형이 일본헌병대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자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아들이 죽자 1931년 다시 밀양의 노곡으로 돌아왔다. 그는 1914년에 자암서당을 설립하고 강학을 재개하였다. 1898년부터 1931년까지 그의 문생 계첩인 「자암계첩(紫巖契帖)」에는 807인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 2.2 노상직의 학문

조선시대 학자의 학문은 대개 부형(父兄)으로부터 전수된 가학(家學)과,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사숙(私淑)을 통하여 전수되는 학통과, 그리고 당대 인물들과의 교류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노상직의 학문의 특징은 우선 기호남인과 영남남인의 학문을 두루 전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안봉언(安朋彦)은 노상직의 학문이 기영(畿嶺)의 학문을 회통하였다고 하였다. 기영의 학문이란 기호 남인의 학문과 영남 남인의 학문을 가리킨다. 기호 남인의 학문은 대개 퇴계학의 기호학맥을 잇는, 즉 퇴계 이황 - 한강 정구 - 미수 허목 - 성호 이익 - 순암 안정복 - 하려 황덕길 - 성재 허전 - 소눌 노상직에 이르는 일련의 학문 전통을 가리킨다. 기영(畿嶺)의 학문을 회통하였다고 한 것은 노상직이 스스로 성재 허전의 문하에 수학하면서 정내석(鄭來錫), 권연하(權璉夏), 이만인(李晩寅), 김흥락(金興洛), 이종기(李種杞), 이만도(李晩燾) 등의 제현과 교류하였고, 영남 남인의 학문은 노상직의 가학이 영남의 여러 학자들과 연계되어 왔다는 점을 가리킨다.

노상직의 가학은 대대로 조선 중기의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학문을 겸하여

계승한 한강 정구의 학맥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노상직의 선조인 옥천(沃村) 노극홍(盧克弘)은 정구의 문인이었으며, 그 손자인 국담(菊潭) 노해(盧垓) 역시 한강의 문인이었다. 국담의 아들인 해은(海隱) 노한석(盧漢錫)은 항재(恒齋) 이송일(李嵩逸)의 문인이었고, 해은의 아들인 금곡(嚶谷) 노문필(盧文弼)은 구곡(郭漣)의 문인이었으며, 노상직의 생부인 극재(克齋) 노필연(盧泌淵)도 일찍이 한강의 8세손인 진암(進庵) 정사교(鄭士喬, 1799-1879)의 문하에서 수학한 바 있었다. 이처럼 노상직은 가학이나 사승(師承) 모두 한강 정구에게로 연원이 귀결된다. 노상직과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교류하였던 북강(福岡) 안언호(安彦浩)가 “결백한 행실과 뛰어난 재능 둘 다 겸하여/ 일신의 생사가 천운에 관계되었으니/ 연원은 寒岡 노인 정택에서 나왔고/ 문호는 沃村 선조 어진 가문 계승했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으로 자주적인 학문태도를 들 수 있다. 노상직은 유학자였으므로 「소학」과 사서오경 등의 경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전을 통한 학문 방법과 그 표준을 우리나라의 선현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상직의 관심은 성재 허건의 학문과 교학(敎學) 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재는 그 문도들에게 강학을 하면서 학문상의 중요 논점을 동국 선현의 서적에 의거하여 전수하였다. 이런 흔적은 성재 문집은 물론 그 문도들의 저술에서도 도처에 나타난다. 허성재 문도의 학문 경향과 그 요체를 가장 잘 정리하여 설명한 것은 허성재 문도의 한 사람인 일산(一山) 조병규(趙昞奎)의 정자인 일산정(一山亭)의 기문에서 그들의 사문인 허성재의 학풍과 그 학문 요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한 바 있다.

翁은 일찍이 우리 文獻先生을 사사하였다. … 先師께서 가르침으로 삼았던 바는 위로는 「聖學十圖」와 「心經發揮」와 「經說」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경전의 「疾書」와 「下學指南」과 「東賢學則」인데, 모두 誠敬을 恒久하게 하는 要法이다.

성재가 그 문도들에게 가르침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여러 저술은 모두 우리나라 선현의 저술이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와 한강 정구의 「심경발휘」와 미수 허

목의 「경설」, 성호 이익의 「질서」와 순암 안정복의 「하학지남」과 하려 황덕길의 「동현학칙」은 모두 기왕의 성리학자들의 경학과 심학, 소학 등 학문 요체를 요약하거나 부연하여 평이하게 설명한 저술들이다.

경전이나 제가의 학설을 그림[圖]으로 요약하거나 발췌 질충하여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주자의 「근사록」과 「소학」편찬에 이미 전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권근(權近)의 「입학도설」,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 이황의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의 저술에서도 이미 전례가 있었다. 이러한 학문 방법은 노상직이 직접 사사한 성재 허전도 애용하여 「중요록」, 「철명편」 등의 저술을 남겨서 그 문도들이 간행하여 유포한 적이 있었다.

노상직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학문의 여러 가지 내용이 유학자로서도 도의시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면서도 신학문이 지향하는 학문의 본질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유가학문의 입장에서 학문의 본원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리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당시의 시대 조류인 신학문의 내용이 비록 빠른 효과를 얻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법도는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파리장서에의 서명이다.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호소하는 소위 파리장서에 그는 문하생 14명과 함께 서명하였다. 이같이 서명을 하고 많은 저술을 간행함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대한 소리없는 저항이며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문화운동이기도 하였다.

노상직의 저술을 보면, 「역년제강(歷年提綱)」, 「상체편람(常體便覽)」, 「주자성리설절요(朱子性理說節要)」, 「동국씨족고(東國氏族攷)」, 「국조문인생졸록(國朝聞人生卒錄)」 등으로서 성리학, 역사학, 예학에 관한 것이다.

노상직은 선현의 문헌간행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으니, 49세 때 「성재선생속집」과 「부록」을 간행하였고, 63세 때에는 「성호선생문집」 「하려선생문집」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그는 기호남인의 학맥에 이르는 선현들의 문집을 간행함으로써 그들의 학문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 3. 「여사수지」의 분석

#### 3.1 서명 분석

‘여사수지(女士須知)’라는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사(女士)’란 ‘여자로써 군자의 행실이 있는 사람’, 즉 숙원(淑媛, 재덕이 빼어난 여자)이나 숙녀(淑女, 정숙한 여자. 착하고 부덕이 있는 여자.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sup>8)</sup>

‘수지(須知)’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는 명령 또는 결정의 말이다. ‘수지(須知)’가 서명에 들어가는 책으로는 율곡 이이의 「소아수지」가 있다. 「소아수지」는 이이(李珥)가 아동교육의 지침 또는 학규(學規)를 엮은 책으로 그 내용은 교훈을 잘 지켜 조금이라도 다른 일에 방심하지 말 것, 부모가 시키는 일은 곧 행할 것, 어른을 공경하며 아뢰는 말씨는 부드럽게 할 것, 형제는 사랑하며 다투지 말 것, 서로 경계하고 깨우쳐서 남의 원망과 노여움을 사지 말 것, 손가짐을 바로 하며 함부로 손을 내리거나 외발로 기대서거나 하지 말 것,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여 경솔히 뛰거나 넘거나 하지 말 것 등 17개 조목에 걸쳐 대인관계와 스스로의 몸가짐·학습태도 등을 소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9)</sup>

이렇게 볼 때 ‘여사수지’라는 서명은 교양과 예의가 있는 부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즉 부녀교육의 지침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파악된다.

8) 민중서림 편집부 편, 「漢韓大字典」(서울: 민중서림, 1997), 521, 1163. 여사(女史)는 후궁(後宮)에 출사하여 기록·문서를 맡은 여관(女官, 궁녀)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즈음 학문이 있는 부녀의 이름 밑에 붙여서 높이는 말로도 쓰인다. 여사(女使)는 ‘여자 종’을 이르고, 여사(女師)는 ‘꽃어미, 유모’를 이른다

9) 이원호, “소아수지(小兒須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18196&ty=2>.

## 3.2 서문 분석

노상직의 <女士須知 序>를 분석하면, 여성교육의 의의, 편찬 동기, 편차 등이 책의 개략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3.2.1 여성 교육의 의의

노상직은 한 집이 흥성하고 쇠퇴하는 것이 부인이 현명한가 어리석은가에 달려 있으므로 한 집안을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다.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 법칙은 여성을 열등한 지위로 규정짓고 있다. 이는 왕상(王相)의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다. 낮고 부드러운(卑弱) 태도는 여자의 바른 도리이다. 낮추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 한다면 옳고 바름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다면 비록 다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볼 것이 없다.”<sup>10)</sup>는 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하면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만 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내부 영역이 남성이라는 외부 영역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만은 부인이 주도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가정의 운영은 마치 한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가정의 평화와 번영은 부인이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부인의 과업이며, 막중한 의무였다. 왜냐하면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왕조의 흥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인식의 근원은 『열녀전』을 편찬한 기원전 1세기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원대(元代) 마단림(馬端臨)은 『문헌통고(文獻

10) 반소(班昭), ‘여계(女誡),’ 이숙인 역주, 『여사서(女四書)』(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3), 25.

11)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서울: 아카넷, 2003), 321-322.

通考)」「경적고(經籍考)」에서 유향의 「열녀전」 찬술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2)</sup>

한나라는 진나라의 폐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풍속이 몹시 문란하였다. 게다가 성제의 후궁인 조비연 자매와 위첩여의 무리들은 더욱 방탕하였다. 이에 유향은 왕정은 반드시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옛날의 여인들의 선악이 흥망의 원인이었음을 들어 천자를 경계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향이 「열녀전」을 저술한 대의이다.

「내훈(內訓)」을 편찬한 조선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 한씨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여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주(周)나라 문왕(文王)은 그의 부인 태사(太姒)의 총명함이 있었기에 교화(教化)가 더욱 밝아지고 넓혀졌으며,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중국명의 패자(覇者)가 된 것은 번희(樊姬)의 뒷받침에 힘 입은 바 컸으니, 임금을 섬기고 지아비를 섬기는 데에 감히 누가 이들보다 나올 수 있으랴.

나는 일찍이 글을 읽다가 달기(妲己 : 은나라 紂王의 妃)의 미소와, 포사(褒姒 : 周나라 幽王의 愛妃. 도무지 웃지를 않아 왕이 거짓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모이게 한 것을 보고야 비로소 웃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진짜 난리가 나서 봉화를 올려도 제후들이 모이지 않아 왕은 죽고 포사는 포로가 됨)의 아양과, 여희(驪姬 : 여용의 계집. 태자를 참살함)의 눈물과, 비연(飛燕 : 한나라 成帝의 妃)의 거짓말에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섬뜩하여 책읽기를 그만둔 적이 있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비록 사내 대장부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달려 있다고는 하나, 역시 여자의 감추어진 힘이 매우 무서움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여자도 모름지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 3.2.2 편찬 동기

노상직은 여성이 배워야 할 책으로 「내훈」, 「열녀전」, 「소학」과 우리나라의

12) 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 : 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열녀전(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57.

13) 昭惠王后 韓氏, 「內訓 序」 孫枉洙 譯註, 「알기 쉽게 풀이한 內訓」(서울 : 배제서관, 1991), 15-16.

「삼강행실」을 들었다. 「내훈」을 편찬한 소혜왕후 한씨는 「소학」, 「열녀전」, 「여교(女敎)」와 우리나라의 「명심보감」을 들었다. 노상직과 소혜왕후가 공통으로 꼽은 여성교육서는 「소학」과 「열녀전」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 에 보면, 옛날 하, 은, 주 시대에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누구나 소학교에 들어가 집안을 청소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기본예절과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애하는 도리를 배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대(周代) 이후 교육제도가 무너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진시황의 분서(焚書)로 인하여 보존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주자는 고대 소학의 교육을 재현할 목적으로 제자인 유청지(劉淸之)와 함께 옛 경전 중에 소학의 가르침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뽑고, 한나라 이후 선현들의 훌륭한 말씀과 행실을 발췌하여 「소학」을 엮었다. 이 「소학」은 후일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모델로 높이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은 평생토록 「소학」을 읽고, 「소학」의 내용을 실천하며 스스로 ‘소학동자’라 칭하기까지 하였다.<sup>14)</sup>

「열녀전」은 열녀의 행실을 적은 전기로서 기원전 1세기 중국 전한시대 유향(劉向)이 저술하였다. 「열녀전」은 중국 최초의 여성 전기집이자 여성 교육서로 고대의 여성 유형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여성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대(漢代)는 중국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유학이 전면에서 부상하는 시기로서 바로 이 무렵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이 정립되었다. 상고 시대의 활달하고 개성적인 여성 대신 규수(閨秀)요, 현모(賢母)로서의 유교적 여성 이미지가 각인되었다.<sup>15)</sup>

「열녀전」의 내용을 보면, 신화시대로부터 전한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자신이 설정한 7개의 유형을 대표할 여성 104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술하고 논평하였다.<sup>16)</sup> 전체 구성은 어진 아내 혹은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모범적인 여성

14) 成百曉, “이 책에 대하여,”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小學集註」(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3.

15) 정재서, “머리말”,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앞책, 5.

16) 「열녀전」의 내용을 개괄하면, 첫째 「모의전(母儀傳)」에서는 남편을 잘 보필했거나 아들

상을 제시한 ‘모의전(母儀傳)’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집안을 망친 사악한 여성들을 열거한 ‘얼폐전(孽嬖傳)’으로 끝난다. 이는 여성의 능력과 역할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 그 한계와 귀착점을 은연중 지시하고 있다. 이야기 한 편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인물의 행적에 대한 소상한 서술은 말미에 ‘군자왈(君子曰)’로 시작되는 유향, 즉 남성 논평자의 ‘말씀’에 의하여 한 순간에 귀결됨으로써 여성의 삶이 종국적으로 남성 영역에서 해석되고 취사 선택됨을 보여준다.<sup>17)</sup>

노상직은 한 집의 성쇠가 부인의 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므로 여성은 「내칙」, 「열녀전」, 「소학」, 「삼강행실」 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여성의 책무가 봉제사(奉祭祀), 길쌈, 접빈객(接賓客) 등으로 인해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없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女士須知」라 명명했다. 그는 이 책이 아들의 아내, 딸자식들이 부모 섬기며, 시부모 섬기며, 남편 섬기며, 자식 가르치는 도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찬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자를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여성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한글 번역을 병기하였다. 저자가 저술하면서 직접 한글 번역을 함께 기술하는 것은 외국어교재가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이었다. 이는 저자가 독자를 부인 가운데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대부가의 일부 식자층뿐 아니라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일반 독자층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는 조선말기 노상직이 「여사수지」를 편찬한 것보다 7년 앞서 박문호가 37세 때인 1882년에 남자가 배우는 「소학」과 같이 여자에게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여소학」<sup>18)</sup>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을 잘 시킨 여성들, 둘째 「현명전(賢明傳)」에서는 사리에 밝고 시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여성들, 셋째 「인지전(仁智傳)」에서는 식견과 재능이 있는 여성들, 넷째 「정순전(貞順傳)」에서는 예의·규범을 철저히 지킨 여성들, 다섯째 「절의전(節義傳)」에서는 절개와 의리를 실천한 여성들, 여섯째 「변통전(辯通傳)」에서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할 줄 아는 여성들, 일곱째 「얼폐전(孽嬖傳)」에서는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여성들, 이 같은 일곱 부류의 여성들의 행적을 실었다. 정제서, “『열녀전』의 여성 유형학”, 윗책 20.

17)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윗책, 19-21.

### 3.2.3 편차

「여사수지」의 편차는 입교(立敎), 계고(稽古), 입교속록(立敎續錄 : 東國嘉言), 계고속록(稽古續錄 : 東國善行)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르침을 세우는 ‘입교’편과 옛날을 상고하는 ‘계고’편은 「소학」에서 가져왔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기술한 가언(嘉言)편과 ‘선행(善行)’편을 통해 가르침을 가깝게 느끼고 알기 쉽도록 하였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주자의 「소학」은 立敎, 明倫, 敬身, 稽古, 嘉言, 善行의 6편으로 되어 있다. 주된 가르침은 입교, 명륜, 경신의 3편에 있고, 계고편은 한나라 이전, 즉 우·하·은·주나라의 성현의 자취를 통해 입교, 명륜, 경신의 말을 증명했고, 가언·선행 편은 한나라 이후 현자의 훌륭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 입교, 명륜, 경신의 말을 실증하였다.

이로써 「소학」의 입교, 명륜, 경신, 계고, 가언, 선행 6편이 「여사수지」의 입교 편과 계고편 2편으로 축약되었는데 「소학」의 입교, 명륜, 경신의 3편이 「여사수지」의 ‘입교’편으로, 「소학」의 계고·가언·선행 3편이 「여사수지」의 ‘계고’편으로 축약되었다. 「소학」의 계고, 가언, 선행 3편은 입교, 명륜, 경신 3편의 가르침을 성현 말씀과 행실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학」의 계고·가언·선행의 3편이 축약된 「여사수지」의 계고편은 「소학」의 입교·명륜·경신의 3편이 축약된 「여사수지」의 입교편의 가르침을 성현의 말씀과 행실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인 노상직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제1편인 入敎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사수지」의 東國嘉言편과 東國善行 편은 「소학」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 선현의 훌륭한 말과 착한 행실을 기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 두 편이 주자가 편한 「소학」과 다른 점이며, 이로써 이 책의 독자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현의 가르침을 주자의 「소학」에서 뽑은 입교·계고편 뒤에 편철함으로써 우리의 가르침을 존중한 것은 성재 허전의 자주적인 학문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18) 朴文鎬, 「女小學」, 「壺山全書」 3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7), 545-709.

### 3.3 입교편 분석

#### 3.3.1 내용 분석

「여사수지」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입교편은 3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내용에 따라 크게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입교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잉태했을 때의 유의점

###### 1) 자식 배었을 때의 유의사항

- 잘 때 기울이지 않으며, 가에 앉지 않으며, 설 때에 한쪽 발로 서지 아니며, 사특한 맛을 먹지 않으며, 벤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며, 사특한 빛을 보지 않으며,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면 ->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얼굴이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나다.

##### II. 자녀교육

- 2) 7살 어린이에 대한 교육내용 : 남녀 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한데 먹지 않는다
- 3) 10살 여아에 대한 교육 내용  
행실 : 나다니지 않는다.  
의복 장단 : 삼, 모시, 실과 고치, 명주 깃을 짜며 여공을 배워서 의복을 장만한다.

##### III. 딸을 시집보낼 때의 훈계

- 4) 아버지의 훈계 - 경계하며 조심하여 일찍 일어나며 밤들거든 자서, 시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 5) 어머니의 훈계 - 힘쓰며 조심하여 일찍 일어나며 밤들거든 자서 집일을 어기지 말라
- 6) 서모의 훈계 - 부모 말씀 으뜸삼아 일찍 일어나며 밤들거든 자서 허물없게 하라

##### IV. 시부모 섬기기의 실제

- 7) 며느리의 아침 기상 - 첫닭이 울 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단장하고는, 시부모 계신 곳에 가서 안부 묻고 시중들고 부축한다.
- 8) 시부모의 세수 시중 - 반과 물을 받들고 세수하기를 청하고, 마치면 수건을 드린다.
- 9) 시부모의 음식 시중 - 원하는 음식을 물어서 드리고, 시부모 맛본 후에 물러난다.
- 10) 시부모의 거동(앉을 때와 누울 때) 시중 - 시부모 안거나 누우실 때 어디를 향할지 물으며, 뒤편 앉고, 모신 이는 이불과 베개를 거두어 간수한다.

- 11) 시부모의 침구, 기물 간수 - 시부모의 이불·자리·베개·궤는 옮기지 않으며, 작지·신·그릇을 가까이 말며, 그릇을 쓰지 아니하며, 예사음식이라도 남은 것 아니거든 먹지 아니한다.
- 12) 시부모 앞에서의 유의사항 : 빨리 대답하고, 진퇴주선에 조심한다.  
금지사항 : 딸꼭질, 트림, 재치기, 기침, 하품, 기지개, 한발로 기울여 서고, 기대며, 걸눈질하기, 침뱉기, 코풀기
- 13) 며느리의 행동거지 - 추위도 더 입지 않고, 가려워도 굽지 않고, 더러운 옷과 이불을 보이지 않는다.
- 14) 시부모를 깨끗하게 받든다. - 시부모의 침과 코가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과 띠가 타지거든 기우고 불이며, 옷과 치마가 때묻거든 재물타서 씻기를 청하라
- 15) 시부모의 명령 - 거슬리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라
- 16) 시부모가 주시거든 - 음식 : 즐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맛보고  
옷 :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입어라

#### V. 시집살이에서의 유의점

- 17) 며느리는 기물을 사사로이 하지 말라 - 사사 재물, 사사로이 기르는 것, 사사 그릇이 없으며, 사사로 빌리지도, 주지도 못한다.
- 18) 친척이나 동기간이라도 사사로이 주지 말라 - 만일 주려거든 반드시 연고를 말하여 허락을 받고 주어라.
- 19) 내방의 위계 - 매사를 시어머니께 청하고, 지차며느리는 만며느리에게 청하라.
- 20) 며느리 간의 위계 : 지차며느리의 만며느리에 대한 태도 - 만며느리에게 같이 하자고 하지 말며, 만며느리와 같이 다니지 못하며, 같이 하인에게 일시키지 못하며, 같이 앉지 못한다.
- 21) 모든 일을 시부모의 명령에 따르라 - 자기 방에 가라는 명령이 없으면 물러나지 못하며, 크고 작은 일을 시부모께 청하라.
- 22) 아침에 할 일 - 첫 닭이 울 때 일어나 세수·양치·옷 입고, 베개와 자리를 걷고, 방·당·뜰을 물 뿌려 쓸어 자리를 깔고 각각 그 일을 좇을 것이라.

#### VI. 부부간의 분별

- 23) 부인의 덕은 미더움(信) - 한번 같이하면 평생 바꾸지 않는다.
- 24) 남녀의 구별 :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  
남녀유별 : 사람, 남녀부별 : 금수
- 25) 禮 : 부부를 삼가는 데에서 비롯된다. -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한다.  
사나이 : 밖 - 안에 들지 않고, 계집 : 안 - 밖에 나지 않는다.
- 26) 부부간 구분 - 옷 거는 줄대, 목욕 그릇, 상자와 단사기 베개와 자리와 이불을 남편과 같이 하지 않는다.
- 27) 안과 밖(부부간) 구분의 예시 - 밖은 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안은 바깥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제사와 초상이 아니면 그릇을 주지 않으며, 주더라도 여자는 대그릇으로 받는다.
- 28) 안과 밖(부부간) 구분의 예시 - 안과 밖은 우물, 자는 자리, 빌며 빌리기, 의복을

통하지 않는다.

- 29) 여자가 외출할 때 - 얼굴을 가리며, 밤에는 촛불이 없으면 나가지 못한다.  
30) 길에서는 외편으로 가라.

Ⅶ. 부인의 바람직한 태도

- 31) 부부는 인륜의 큰 버리로서 단명하고 장수하는 것이 달려 있다  
- 조혼의 폐단: 1) 아버이 될 도리를 알지 못 하면서 자식을 두어 교화가 밝지 못하고, 2) 백성이 단명한다.  
32) 남편과 시부모를 중히 여겨라. - 남편을 가버이 여기고, 시부모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큰 화가 생긴다.  
33) 부인의 일: 의복, 음식 장만뿐 - 나라일과 집안일을 주관할 수 없다 총명하고 재주있어 고금에 통달하더라도 남편을 보좌하여 부족함을 권면하는 것  
34) 칠거지악(七去之惡)  
35) 삼불거(三不去)  
36) 부모 초상 때의 유의사항 - 여자는 중문 안에 있으며 장막 이불 요에 화려한 것은 걸어치우고, 남자의 초상에는 이르지 않는다.  
37) 부인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 마음대로 (천단) 하는 것이 없다. : 三從之道 - 감히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없다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문밖에 나지 않으며, 일은 음식 이바지하는 사이에 있다.  
38) 부인은 방문 안에서 날이 저문다. - 밖에 나다니지 않는다.  
- 아버지 상사라도 100리만 가지 못한다. 일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으며, 행실은 홀로 이롭이 없으며, 참여한 후에 움직이며, 증거한 후에 말하며, 낮에는 뜰에 다니지 않으며, 밤에는 불을 가지고 다니니-> 부인의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입교편은 ‘가르침을 세우는’ 편으로 내용은 1) 임신 중 태교부터, 2) 양육할 때와, 3) 시집보낼 때의 훈계, 4) 시집가서 며느리로서 시부모 섬기기, 5) 시집살이에서의 유의점, 6) 부부간·남녀간의 분별, 7) 여성 특히 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것이다.

제22장은 제7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중복되므로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小學集解」에서는 이 장이 내외의 노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sup>19)</sup> 이를 볼 때에도 그러하다. 제31장은 조혼의 폐단을 말하고 있는데, 앞뒤에 며느리를 택할 때의 유의점 등 혼례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부간의 분별 다음에 오니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19) “此言內外婢僕也”,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小學集註」(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78.

노상직이 부모 섬기며, 시부모 섬기며, 남편 섬기며, 자식 가르치는 도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학』의 부모 섬기고, 자식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여사수지』에서는 거의 생략되어 시부모 섬기고 남편 섬기는 것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 3.3.2 인용문헌 분석

노상직은 『여사수지』의 제1·2편을 『소학』에서 따왔다고 했다. 『여사수지』의 제1편인 입교편 38장 가운데 제31장을 제외하고는 37장 모두가 『소학』에서 인용한 것이다. 저자인 노상직은 『소학』에서 인용할 때, 어떤 장은 수정 없이 전부를 인용했고, 어떤 장은 일부를 가져왔으며, 간혹 문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바꾸기도 했다. 이를 파악하면 저자의 편찬의도를 더욱 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자가 편찬한 『소학』도 주자가 그 이전의 문헌에서 인용하여 편집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주자가 인용한 원전도 함께 밝힌다.

아울러 소혜왕후 한씨는 「내훈」을 『소학』, 「열녀전」, 「여교(女教)」, 「명심보감」에서 따왔다고 했으므로 소학에서 따온 「여사수지」 입교편과 「내훈」은 본문이 일치하는 장이 많다. 「여사수지」의 내용이 「내훈」과 동일한 장은 그 출전을 밝혔다.

『여사수지』의 입교편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입교편의 인용문헌 분석

장	인용 문헌	편, 장	원전	입교편에서의 편집사항	비고
		편			
1	小學	立教 (1)	列女傳	앞 列女傳曰 古者婦人 생략	출전, 주어 생략
	內訓	제5장 母儀			
2-3	小學	立教 (2)	예기 內則		
	內訓	제5장 母儀			
4-6	小學	明倫 第二 (61)	예기 內則	4 앞 士婚禮曰 父離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歸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子曰 諾 唯恐不堪 不敢忘命 생략	출전, 아버지가 장가가는 아들에게
	內訓	제3장 昏禮			

소설 노상직의 「女士須知」 분석

					흔 계 하는 부분 생략
7-9	小學	明倫 第二 (1)	예기 內則		
10-11	小學	明倫 第二 (3)	예기 內則	10과 11 앞 父母 생략	父母 생략
12-14	小學	明倫 第二 (4)	예기 內則	12 앞 內則曰 생략, 舅姑 앞 父母 생략 14 父母를 舅姑로 교체	출전, 父母 생략, 舅姑로 교 체
	內訓	제2장 孝親			
15-16	小學	明倫 第二 (11)	예기 內則	15 앞 內則曰 子婦孝者敬者 父母 생략	출전, 父母 생략
17-18	小學	明倫 第二 (12)	예기 內則	17, 18 앞 子婦 생략	주어 생략
19-21	小學	明倫 第二 (19)	예기 內則	19 앞 內則曰 舅沒則姑老 冢婦所祭祀 賓客 생략 19와 20 사이 舅姑使冢婦 母怠 不敢無禮於介婦 생략 21 앞 凡婦, 중간 婦(주어) 생략	출전 생략 만 머느 리 로서의 주 의사항, 주 어 생략
	內訓	제2장 孝親			
22	小學	明倫 第二 (2)	예기 內則	22 앞 凡內外 생략	小學集解 : 이는 內外 의 노비에 대하여 말 한 것임
23-24	小學	明倫 第二 (62)	禮記 郊特牲	23 앞 禮記曰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 (娶)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 幣必誠 辭 無不腆 告之以直信 信事人也 생략, 마 지막 故夫死不嫁 생략 24 앞 男子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一也 執摯以 相見 敬章別也 男女有別然後 父子親 父子親然後 義生 義生然後 禮作 禮作 然後 萬物安 생략 無別無義->男女無別로 바꿈	출전, 남자 와 관련된 사항 생략
	內訓	제3장 昏禮			
25-26	小學	明倫 第二 (65)	예기 內則	25 앞 內則曰 생략	출전 생략
	內訓	제1장 言行			
27-30	小學	明倫 第二 (66)	예기 內則	28 外內不共井 다음에 不共湑浴 생략 29 앞 男子入內 不嚙不指 夜行以燭 無 燭則止 생략 30 道路와 由左 사이에 男子由右 女子 생략	男子 와 관 련된 사항 생략

31*	內訓	제3장 昏禮		王吉上疏曰 생략	출전 생략
32	小學	嘉言 第五 (42)	溫公書儀	司馬溫公曰 凡議婚姻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 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婿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 不富貴乎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 不貧賤乎 婦者 家之所由盛衰也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 彼挾其富貴 鮮有不	출전, 머느리를 취할 때 유의사항 생략
	內訓	제3장 昏禮			
33	小學	嘉言 第五 (45)	顏氏家訓	앞 顏氏家訓曰 생략	출전생략
	內訓	제4장 夫婦章 上			
34-35	小學	明倫 第二 (67 후반부)	大戴禮 本命解, 家語		
	內訓	제3장 昏禮			
36	小學	嘉言 第五 (24)	溫公書儀	1) 앞 司馬溫公曰 생략, 2) 父母之喪 다음 中門外 擇樸陋之室 爲丈夫喪次 斬衰 屨苦 枕塊 不脫經帶 不與人坐焉 생략 3)華麗之物 다음 男子無故 不入中門 婦人 생략	1)출전, 2) 남자와 관련된 사항, 3)남자 주어 생략
	內訓	제2장 孝親			
37-38	小學	明倫 第二 (67 전반부)	大戴禮 本命解, 家語	37 앞 孔子曰 생략 38 앞 是故 女 생략	출전 생략 주어 생략
	內訓	제3장 昏禮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저자가 「여사수지」의 입교편을 편찬할 때 「소학」을 인용하면서 편집한 사항을 다음 일곱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출전을 생략했다.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여사수지」라고 명명했다는 제목이 말하듯이, 저자는 내용의 전달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책에서 따왔는지, 혹은 누구의 말씀인지를 말해주는 출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간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몇 자라도 더 간단히 하기 위해 ‘OOO曰’의 출전은 모두 생략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아울러 문장의 주어인 ‘婦人’이나 ‘婦’를 생략했다. 제1장에서는 ‘古者婦人’을 제17·18장에서는 ‘子婦’를 제21장에서는 ‘凡婦’, ‘婦’를, 제38장에서는 ‘女’를 생략했다. 「여사수지」는 女士가 지켜야 할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부인 해

관한 것이 명확한 경우는 ‘婦’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남자에 관련된 내용을 생략했다. 「여사수지」가 여성교육을 위해 편찬되었으므로 남자에 관련된 내용을 생략했다. 제4장 앞에 아버지가 장가가는 아들에게 훈계하는 부분이나 내용이나 제24장 앞에 혼례 때 남자가 친영하는 제 29장과 제30장에 남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였다.

넷째, 본문에서 ‘父母’를 생략하거나 혹은 ‘父母’를 ‘舅姑’로 대체했다. 「소학」에서는 ‘부모’ 섬기기와 ‘시부모’ 섬기기가 동일한데 「여사수지」를 보면 제12장에서는 ‘부모’를 생략하고 제14장에서는 ‘부모’를 ‘구고’로 바꿈으로써 부모 섬기기를 생략하고 시부모 섬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명의 ‘女士’가 암시하듯이 부인을 표적독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라도 부모를 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출가 후 며느리가 되었을 때를 위주로 한 가르침이다. 그리하여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婦人’이나 ‘婦’를 생략했다.

다섯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부인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에게 굴종하라는 공자의 말씀이다. 저자는 공자의 말씀을 가져와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학」에서의 순서를 바꾸었다. 「소학」에서는 제 37-38-34-35장의 순서로 편차하여 성인이 남녀의 교제를 신중히 하고, 혼인의 시초를 소중히 하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제시하였는데, 「여사수지」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부덕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변용되도록 제시하였다.

여섯째, 원전의 70% 이상이 「예기」의 내칙편이다. 입교편의 원전을 보면 38장 가운데 제1, 23-24, 31-38장의 11장을 제외하고 71%에 해당하는 27 장이 「예기」의 내칙편이다. 내칙편은 「예기」 44편 가운데 제12편으로서 내(內)는 가옥내(家屋內)이고, 칙(則)은 예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 편은 집안에 있어서 남녀의 예의 또는 부모·시집 식구 등에 대한 의례(儀禮)를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칙’이라고 하였다.<sup>20)</sup> 원출전을 보더라도 「여사수지」가 집안에서의 예의가 주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곱째, 여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시부모 섬기기’와 ‘부부, 남녀 간의 분별’에

20)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흥신문화사, 1989), 231.

거의 집중되어 있다. 여성교육서인 소계왕후의 「내훈」에서는 言行, 孝親, 昏禮, 夫婦, 母儀, 敦睦, 廉儉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孝親, 昏禮, 夫婦, 母儀편의 가르침은 「여사수지」에서 볼 수 있으나, 言行·敦睦·廉儉편의 가르침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이유라고 한다.<sup>21)</sup>

### 3.3.3 「소학」과의 편차 비교분석

「소학」은 주자가 58세에 편찬한 책으로 내편은 입교(入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의 4편이고, 외편은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의 2편이다. 외편에서는 고급의 아름다운 말을 취하여 넓혔고, 선행을 취하여 실증하였다. 「소학집주」의 총목차를 보면, 입교편은 13장으로 옛날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던 법을 세웠다. 제1장은 잉태했을 때의 가르침이고, 제2-3장은 보호하는 사람과 스승의 가르침을, 제4-8장은 학교와 정치의 가르침, 제9-13장은 스승과 제자간의 가르침이다.

명륜편은 인륜을 밝힌 편으로 108장이다. 제1-39장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함을 밝혔고[明父子之親], 제40-59장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를 밝혔고[明君臣之義], 제60-68장은 부부 사이의 분별을 밝혔고[明夫婦之別], 제69-88장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례를 밝혔고[明長幼之序], 제89-99장은 벗과의 사귀음을 밝혔고[明朋友之交], 제100-108장은 통론이다.<sup>22)</sup>

21) 「여교(女敎)」에 이르기를, “시부모가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은 능히 효도를 잘 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니, 진실로 효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며느리를 얻어서 무엇 하겠는가? 며느리가 된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며 효성하며 오직 털끝만큼이라도 시부모의 뜻에 어긋날까 염려해야 한다. (중략) 이렇게 해야 후손들도 본받아 역시 그대처럼 할 것이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이에 따르는 것이니, 모쪼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女敎云 舅姑娶婦 在能敎之 苟不能孝 娶汝何爲 爲之婦者 夙夜祇畏 愉恐一毫 稍違其意 中略) 後人則效 亦如汝僞 身敎而從 慎之戒之). 昭惠王后 韓氏 孫衿洙 譯註 「알기 쉽게 풀이한 內訓」 (서울 : 배제서관 1991), 53-54 참조

22) 경신편은 46장으로 제1-12장은 심술의 요점을 밝혔고(明心術之要), 제13-33장은 위의를 법칙을 밝혔고(明威儀之則), 제34-40장은 의복의 제도를 밝혔고(明衣服之制), 제41-46장

가언편은 91장으로 한나라 이래 현자가 말한 훌륭한 말을 기술하여 입교, 명륜, 경신의 말을 넓혔다. 제1-14장은 입교를 넓혔고[廣立教], 제15-55장은 명륜을 넓혔고[廣明倫], 제56-91장은 경신을 넓혔다[廣敬身].

「여사수지」의 입교편에서는 「소학」 입교편의 제1, 2장, 「소학」 명륜편의 제61, 1, 3, 4, 11, 12, 19, 2, 62, 65, 66, 67 장 후반부, 「소학」가언편의 제42, 45, 24 장, 「소학」 명륜편의 제67장 전반부의 순으로 편차하였다.

「여사수지」 입교편을 보면 「소학」 입교편에서는 제1, 2장이 인용되었다. 제1장은 임신했을 때의 태교이고, 제2장은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가르침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지식교육은 남아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는지, 지식을 익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아의 행실과 관련되는 것만 제시했다.

「소학」 명륜편에서는 제1, 2, 3, 4, 11, 12, 19, 61, 62, 65, 67장이 「여사수지」 입교편에 인용되었다. 「소학」 명륜편 108장 가운데 「여사수지」에 인용된 장들은 부모와 자식간의 친함[父子之親]과 부부간의 분별[夫婦之別]을 밝히는 내용이다. 「소학」 명륜편의 제1-39장은 부모와 자식간의 친함을 밝혔는데<sup>23)</sup> 「여사수지」에 인용된 장들이 「소학」에서 지니는 의미를 보면, 제1,2,3,4장은 아버지 섬기는 예절이고, 제11,12장은 아버지 명령을 공경하는 예절이며, 제19장은 공경을 넓히는 예절이다. 「여사수지」에서는 본문에서 ‘父母’를 제외하거나 ‘父母’를 ‘舅姑’로

은 음식의 예절을 밝혔다(明飲食之節). 제고편은 47 장으로 虞·夏·商·周의 성현들이 이미 행한 자취를 고찰하여 앞 편인 입교, 명륜, 경신의 말을 증명하였다. 제1-4장은 입교, 제5-35장은 명륜, 제36-44장은 경신, 제45-47장은 통론이다. 선행편은 81장으로 한나라 이래 현자들이 행한 선행을 기록하여 입교, 명륜, 경신을 실증하였다. 제1-8장은 입교를 실증했고(實立教), 제9-53장은 명륜을 실증했고(實明倫), 제54-81장은 경신을 실증했다(實敬身).

23) 이를 또 세분하면, 제1-4장은 아버지 섬기는 예를 밝혔고(明事親之禮), 제5-10장은 사람의 자식된 자의 예절을 밝혔고(明爲人子制之禮), 제11-15장은 아버지 명령을 공경하는 예절을 밝혔고(明敬親命之禮), 제16-20장은 사랑과 공경을 넓히는 예절을 밝혔고(廣愛敬之禮), 제21-23장은 잘못을 간하는 예절을 밝혔고(明諫過之禮), 제24-25장은 질병에 모시고 봉양하는 예절을 밝혔고(明侍養疾病之禮), 제26-27장은 몸을 삼가는 예절을 밝혔고(明謹身之禮), 제28-33장은 제향의 큰 뜻을 밝혔으며(明祭享大意), 제34-36장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말했고(言孝親之道), 제37-39장은 불효보다 불선한 것이 없으므로 경계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대체함으로 인해 아버이를 섬기고 아버이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를 섬기고 시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장으로 전체의 의미가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학」 명륜편의 제60-68장은 부부간의 분별을 밝혔는데,<sup>24)</sup> 제61, 62장은 혼인의 예절, 제65장은 남녀의 분별, 제67장은 부인을 버리고 취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교는 남성 중심의 철학이지만, 남녀의 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것을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 즉 인간 도덕성의 토대로 간주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부자관계에서 군신관계로 확대되는 사회화 과정의 원천으로도 본다. 우주론적 용어에서 볼 때 하늘[陽]은 땅[陰] 위에 군림하며, 남성은 여성에 대해 우위에 있다.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명확한 위계질서는 우주론적으로 공인되어 인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 질서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해야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학자들은 여성들의 내부·가사 영역과 남성들의 외부·공식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들은 성적 타락이나 이기심이 사회 불안이나 부부간에 역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았으므로, 남녀의 구분이 그러한 현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sup>25)</sup> 이런 이유에서 노상직도 부부간·남녀간의 분별을 강조하였다고 파악된다.

「소학」 가언편<sup>26)</sup>에서는 제42, 45, 24장이 「여사수지」 입교편에 인용되었는데, 「소학」 가언편의 제15-55장은 명륜을 넓힌 것이고, 그 가운데 제37-47장은 부부의 분별을 넓혔고, 제15-28장은 父子의 친함을 넓혔다. 따라서 「소학」 가언편에서도 부부간의 분별과 상사(喪事)에서 부인의 예절에 대한 내용이 선택되었다.

24) 이를 또 세분하면, 제60-제64장은 혼인의 예절을 밝혔고(明昏姻之禮), 제65-제66장은 남녀의 구별을 밝혔고(明夫婦之別), 제67장은 버리고 취하는 뜻을 밝혔고(明去取之義), 마지막인 제68장은 과부의 자식에 대한 것으로 끝을 맺었다

25)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혼상 읍집, 앞책, 321-322.

26) 「소학」 가언편의 제15-55장은 明倫을 넓힌 것이다. 이를 더 세분하면 제15-28장은 父子의 친함을 넓혔고[廣父子之親], 제29-38장은 君臣의 의리를 넓혔고[廣君臣之義], 제37-47장은 夫婦의 분별을 넓혔고[廣夫婦之別], 제48장-50장은 長幼의 차례를 넓혔고[廣長幼之序], 제51-53장은 朋友의 사귀를 넓혔고,[廣朋友之交], 마지막 2장은 明倫을 통론한 뜻은 넓힌 것이다.

이로 볼 때 노상직이 「여사수지」 입교편을 편찬할 때 「소학」에서 시부모 봉양하는 것과 그리고 부부간 또는 남녀간의 분별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 3.4 「여사수지」의 의의와 한계

「여사수지」는 계통적으로 「여소학」이나 「해동소학」과 마찬가지로 크기는 「소학」의 한 부류에 속한다. 「여사수지」는 「소학」의 7편을 4편으로 간략하게 하고 내용은 제1, 2편은 「소학」에서, 제3, 4편은 우리나라 선현의 말씀과 행실에서 따왔으므로 주자 「소학」의 한국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재형(朴在馨)의 「해동소학(海東小學)」<sup>27)</sup>은 편차만 주자 「소학」의 체제를 따랐을 뿐, 모든 내용이 우리 선현의 말씀과 행실에서 따왔으므로 주자 「소학」이 한국화, 토착화했음을 의미한다.

외래문헌이 이 땅에 수용되어 한국화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여사수지」는 주자 「소학」과 「해동소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상직이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것은 「여사수지」의 내용을 대중화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여소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사수지」는 조선조의 정체성이 근간부터 흔들리는 혼란기에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 가정이므로 가정의 안주인인 부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술하였다고 파악된다. 「여사수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화하고자 한 저술로서 정(正), 즉 전통을 준수하고 강화함으로써 사(邪), 즉 외세를 배척하고자 하는 당시 유가 사대부의 시대인식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조정에서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발표한 것과 같은 시대인식이다.

「여사수지」는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

27) 원명은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이나 「해동소학(海東小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海東小學』(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1996), 5.

상을 강화하고 그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선조 마지막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자 노상직의 계층적, 생태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성재 허전을 통해 퇴계의 기호학통을, 가학을 통해 영남남인의 학통을 이어받은 조선말기의 유학자 소눌 노상직이 편찬한 『여사수지』의 서문을 분석함으로써 여성교육의 의의, 편찬 동기, 편차 등을 살펴보고,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는 입교편을 대상으로 내용과 인용문헌 분석, 소학과 편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사수지』의 요점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였다.

『여사수지』라는 서명은 교양과 예의있는 부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즉 부녀교육의 지침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다. 서문을 분석하면, 저자는 여성이 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한 집의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성이 「내훈」, 「열녀전」, 「소학」, 「삼강행실」 등을 배워야 하는데,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없으므로 핵심만 뽑아 여사수지를 편찬하였다고 편찬동기를 밝혔다. 편차는 입교, 계고, 입교속록, 계고속록의 4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입교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 있다.

입교편의 내용은 1)임신 중 태교 2)양육할 때의 가르침, 3)딸을 시집보낼 때의 훈계, 4)시집가서 며느리로서 시부모 섬기기, 5)시집살이에서의 유의점, 6)부부간·남녀간의 분별, 7)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것이다.

인용문헌을 분석하면, 저자는 간략히 하기 위해 출전과 문장의 주어인 “婦人”이나 “婦”를 생략했고, 부인을 독자로 하였으므로 ‘남자’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했다. 그리고 ‘父母’를 생략하거나 ‘父母’를 ‘舅姑’로 대체함으로써 시부모 섬기기와 부부간·남녀간의 분별로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부모 섬기고, 자식 가르치는 것에 관한 내용은 거의 생략되었다.

「소학」과의 편차를 비교하면, 『여사수지』의 입교편은 「소학」의 입교·명륜·

가언편에서 인용되었는데, 입교편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함이나 부부 사이의 분별에 대한 것이 집중 선택되었다. 그런데 ‘부모’를 생략하거나 ‘구고(舅姑)’로 교체함으로써 부모 자식 사이의 친함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친함으로 변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친함과 부부 사이의 분별이 주된 가르침이다.

「여사수지」의 학문적 계통을 보면, 「소학」의 체계를 본따서 편찬되었으므로 「소학」의 지류에 속한다. 외래문헌이 한국화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사수지」는 주자 「소학」과 「해동소학」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겠다.

노상직이 새로운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유학자인 저자의 생태적인 한계에 기인한다고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박문호의 「여소학」, 박재형의 「해동소학」 등을 연구하면 주자 「소학」의 한국적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盧相稷. 「女士須知」. 목판본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 흥신문화사, 1987.  
金玉姬. “東鮮朝社會의 女四書를 中心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5.  
金鍾權 譯註. 「新完譯 海東續小學」. 서울 : 明文堂, 1987.  
金喆凡 · 鄭秀美. “小訥 盧相稷의 女性 敎育觀 : 「女士須知」를 中心으로.” 「文  
化傳統論集(慶星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第11輯(2003.12.).  
柳鐸一. 「星湖學脈의 文集刊行研究」.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朴文鎬. “女小學.” 「壺山全書」 3.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7.

-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小學集註」. 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1993.
-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海東小學」. 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1996.
- 孫直銖. 「朝鮮時代 女性敎訓書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1.
- 李德懋 原著. 金鍾權 譯著. 「新完譯 士小節 : 韓國의 傳統禮節」. 서울 : 明文堂, 1985.
- 李相嬌. 「「內訓」과 「士小節」을 통해서 본 朝鮮時代 女性敎育內容의 一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3.
- 鄭景柱. “小訥 盧相稷의 생애와 학문 경향.” 『東洋漢文學研究(東洋漢文學會)』 제18집(2003).
-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숙인 역주. 『여사서』. 서울 : 도서출판 여이연, 2003.
- 昭惠王后 韓氏. 孫衮洙 譯註. 「알기 쉽게 풀이한 內訓」. 서울 : 배제서관,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Martina Dea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이훈상 옮김.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 아카넷, 2003.
- 변도윤. “양성 조화의 ‘보이지 않는 손’”. 『국민일보』, 2005.9.12.